

## 리빌딩 조코비치, 정상 우뚝

노바크 조코비치(31·세르비아·사진)가 남자 테니스 2018시즌을 세계 1위로 마쳤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5일 발표된 남자 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1위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발목 부상 탓에 11일부터 열리는 ATP 파이널스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1위로 올해를 마치는 게 확정됐다.

조코비치가 세계 1위로 시즌을 마치는 건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5번째다. 조코비치보다 세계 1위로 시즌을 마감한 횟수가 많은 건 은퇴한 피트 샘프러스(미국·6회)뿐이다.

올해 초반 해도 조코비치가 시즌을 1위로 마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코비치는 팔꿈치 부상으로 지난해 7월 메이저 대회인 윌블던 이후 코트를 떠났다. 올해 1월 호주 오픈에 복귀했지만, 16강전에서 정현(22·세계 25위)에게 0대3 완패를 당했다.

이후 조코비치는 수술대에 올라 '테니스 선수의 생명'



이라는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2007년 3월 19일(세계 10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단 한 번도 톱10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의 랭킹은 지난 5월 22일까지 내려갔다.

조코비치는 팔꿈치 수술 후 남자 테니스에서 중요도가 50%가 넘는다는 서브를 통째로 바꿨다. 팔꿈치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서브 속도를 버리는 대신 날카로운 승부했다.

결국 조코비치는 올해 윌블던과 US 오픈을 제패했다.

같은 해 세계 20위권 밖에 있다가 1위로 시즌을 마친 건 조코비치가 ATP 역사상 처음이다.

조코비치가 주변에서 "끝났다"는 말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가 막 세계 테니스 정상급 무대에 섰을 때인 2007~2008년에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 기술로선 최고의 평가를 받았지만, 특하면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증상에 조코비치는 뼈를 깎는 식단 관리를 해법으로 택했다. 피자집 아들이었지만 밀가루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과 유제품, 설탕을 끊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쓴 책 '이기는 식단(ServetoWin)'에서 조코비치는 이렇게 서술했다. "2012년 1월 5시간 53분 동안 이어진 호주오픈 결승에서 나달을 꺾은 후 내가 원했던 단 한 가지는 초콜릿이었다. 초코바의 아주아주 작은 네모 조각 하나를 입안에 넣고 햇바닥 위에서 녹였다. 세계 1위가 되기 위해 내게 허락된 양은 딱 그만큼이었다."

## “류현진, 2년 3,000만 - 3년 3,600만 달러에 잔류할 것”

FA 신분이 된 류현진(31)이 LA 다저스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됐다.

7일 'OSEN'에 따르면 다저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저스웨이는 6일 류현진의 미래를 전망했다. 매체는 “류현진이 FA 시장에 나가면 2년 3,000만 달러 또는 3년 3,600만 달러의 제안을 받을 것으로 본다. 다저스의 켈리파잉 오퍼(QO)를 받아들이거나 다저스와 FA 계약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저스는 2일 류현진에게 1년 재계약 제시를 의미하는 켈리파잉 오퍼를 했다. 켈리파잉 오퍼는 원소속팀과 FA 선수의 1년짜리 재계약이다. 연봉은 메이저리그 상위 연봉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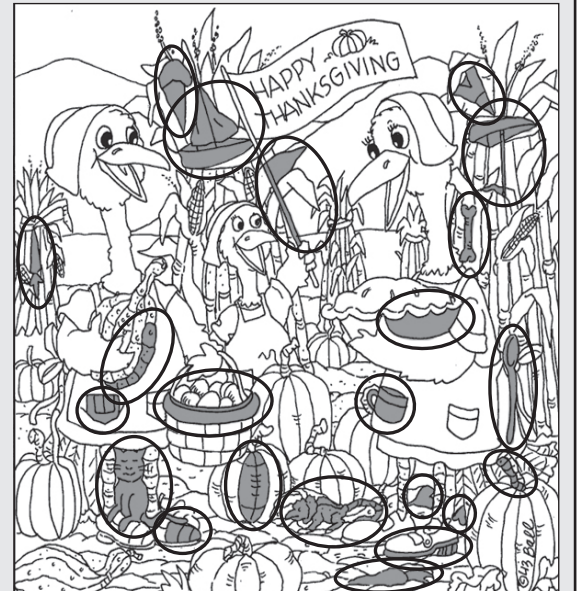
올해는 1,790만 달러다. QO는 보통 대어급 FA 선수들에게만 제안이 간다. 기간은 짧지만 거액의 연봉을 쥐야 되기 때문이다. 대신 선수가 QO를 거절하면 지명권을 얻을 수 있다.

매체는 현재 FA 시장에서 선발 투수를 평가했다. 패트릭 코빈, 찰리 모튼, 네이션 이오발디, J.A. 햄, 델러스 카이클은 FA 시장에서 확실한 '선발 빅5'로 꼽았다. 5명 모두 에이스로는 모자라지만, 우승을 다투는 컨텐더 팀의 2~3선발 능력을 지닌 대단히 단단한 선발 투수라고 평가했다.

다저스웨이가 예상하는 류현진의 FA 시장 가치는 2년 3,000만 달러에서 3년 3,600만 달러이다. 평균 연봉은 줄어들지만, 다년 계약으로 총액은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2~3년 다년 계약의 금액 중에서 가장 좋은 예상이다. 다저스웨이는 “결국 류현진은 QO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다저스와 FA 협상으로 다년 계약을 맺거나 다저스에 잔류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날씨와 한인 커뮤니티 등 환경적인 요인, 투수친화적인 다저스타디움, 허니컷 투수코치 등도 류현진이 다저스에 남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32에 있습니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